

‘세금 먹는 하마’ 광주 시내버스 불친절·난폭 운전 여전하다

불편신고 올 304건 ... 업체 자체교육 ‘숨방망이’

#1. 대학생 A씨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A씨가 탄 시내버스의 출발이 지연되자 기사가 조치 해주길 바랐지만, 기사가 ‘나는 상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

이를 지켜본 A씨가 급기야 기사에게 “승객들을 정리해서 버스가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기사로부터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렇다면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갈까요?”라는 짜증 섞인 대답을 들어야 했다.

#2. 회사원 B씨는 지난 9월 말께 4살바가 딸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 시내버스 기사와 크게 싸웠다. B씨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

선을 이용해 달리던 중 갑자기 3차선에서 끼어드는 시내버스에 경적을 울렸다가 기사와 시비가 된 것. 50대쯤으로 보이는 시내버스 기사는 차를 정차한 뒤 항의하던 B씨에게 다짜고짜 욕설까지 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안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듯한 눈치였다.

최근 일부 시내버스 기사들의 난폭 운전과 승객들에 대한 불친절 행위가 계속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치는 지자체가 각 버스업체에 통보한 뒤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120 빛고을콜센터’로 접수된 버

스이용 불편신고는 ▲불친절 111건 ▲승하차 거부 90건 ▲승강장 미정차 66건 ▲배차시간 미준수 8건 ▲도중 하차 2건 ▲부당요금 1건 ▲기타 26건 등 총 304건이다.

시는 확인결과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94건을 제외한 뒤 시정경고 97건, 교육 40건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이날 현재까지 처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불편신고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친절’ 신고에 대해서는 각 버스업체에 통보한 뒤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점이 일부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어 불친절 기사에 대한 시 차원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강모(32·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일부 불친절한 시내버스 기사들이 광주지역 전체 시내버스에 대

한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3진 아웃제’같은 제도를 시 차원에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씩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친절 교육 등을 받고 있으며, 이를 마친 기사들은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각 버스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각 버스업체에 통보해 해당 기사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기사 개개인의 마음가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2000여명의 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송의중·고생들 용돈모아 연탄 나눔

9일 광주 송의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구입한 연탄 4000장을 방림2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집에 배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폐유 683ℓ 정제유 속여 팔아 37억 부당이득

광주경찰, 40대 영장

유조선 탱크 청소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유를 정제 연료유로 속여 제지공장 등에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정모(47)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폐유 정제업체를 인수한 뒤, 여수와 부산의 벙커C

유 청소업체로부터 물·폐유가 섞인 정모(47)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폐유 정제업체를 인수한 뒤, 여수와 부산의 벙커C 유 청소업체로부터 물·폐유가 섞인 폐유를 1ℓ 당 100원~450원에 구입해 이를 정제 과정을 거친 정제 연료유인 것처럼 속여 영암의 제지공장 등에 1ℓ 당 600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폐유 683ℓ를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폐유를 모 대기업 브랜드가 부착된 24t 오일 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면서 거래업체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지공장 등에서는 사들인 폐유를 산업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지공장 등이 폐유인지 알고도 사들였는지 여부와 단속 공무원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예방접종 영아 사망 사고 의사·간호사 입건 ‘논란’

“수천건 일일이 감독 불가능”

예방접종으로 인한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가 경찰에 입건되자 비현실적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목포경찰은 지난 7월 26일 생후 8개월 된 A양이 목포시 보건소에서 B형 간염 3차 예방주사를 맞고난 후 숨진데 대해 사전 진료(예진)와 지시 없이 접종이 이뤄진 책임을 물어 의사 A(29)씨와 간호사 B(여·2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일선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수천 여건의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소 의사가 일일이 예진과 현장감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내버스 기사 개개인의 마음가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접종 대상자에 대해 의사

가 예진을 한 후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하루에도 수 백명씩 밀려드는 환자를 부족한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목포시의 경우 인근 무안군과 신안군의 접종대상자까지 몰려들어 접종률이 108%에 이르다 보니 의료법에 따른 접종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정결과 예방접종과 유아 사망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보고 예방접종을 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보건소로부터 조례규정을 제출받아 보건소장과 주무과장의 감독상 과실책임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독감 조심”

광주 올 첫 계절 인플루엔자 A형 환자 발생

광주에서 올 들어 첫 계절 인플루엔자 A형 환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지난 10월25~26일 사이 호흡기증상으로 지역 병원을 찾은 2세 여아와 3세 남아에게서 인플루엔자 A(H3N2)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약해진 올해 봄에는 계절인플루엔자 B형이 유행했다. 이번엔 분리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B형에 비해 중증 증

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루엔자(독감)는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목이 많이 붓고 기침과 가래를 동반하며, 고열과 두통이 주요증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내년 초까지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과 청결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몽골 고위층과 친분” 사기

5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몽골 고위층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3

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4일께 또 다른 김모(여·49)씨에게 “몽골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고위층을 잘 알아 부동산을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1억8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차례 걸쳐 23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씨의 여동생에게도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165) 김종두



여수공항에 조영탄 ‘소동’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9일 오전 9시 20분께 여수공항 2층 남자 화장실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등이 긴급 출동, 수거해 확인한 결과 선박 등에서 신호용으로 쓰는 조영탄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공항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원통형에 지름 4cm, 길이 27cm 크기의 조영탄 2발을 수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음탕한 농담

○다방 여종업원에게 음탕한 농담을 건넨 40대가 여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커피 배달원까지 폭행해 경찰서행.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신모(40)씨는 전날 밤 11시3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모텔 객실에서 커피 배달을 나온 다방 여종업원 유모(26)씨에게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며 짓궂은 장난을 하던 중 유씨의 전화를 받고 모텔로 온 다방 배달원 신모(23)씨의 얼굴에 한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신씨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이야기 한 것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 들어서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을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아, 중, 화, 목, 금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